中진출기업 생산 현장을 가다

금호타이어텐진공장 〈상〉

지난 22~27일 '광주·전남비전 21'의 중국경제 체험단과 함께 둘러본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의 현지 활약상을 4차례에 걸쳐 싣는다.

UHP 타이어로 中시장 석권 노려

〈초고성능〉

지난해 7월 준공…年 700만개 생산
내년 2기 증설로 시장 20%대 점유

중국 텐진(天津)시 경제기술개발구(TEDA)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텐진공장 입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로고를 붙인 검은색 제복을 입은 젊은 근로자들이 웃는 얼굴로 근무교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사이 타이어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10t 트럭행렬이 꼬리를 물고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공장 내부는 가쁜 숨소리로 긴장감마저 흐른다. 한쪽에서는 프레스를 눌러 가마솥 같은 타이어 모형을 찍어내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매달린 근로자들이 불량품을 골라내느라 연신 땀을 훔치고 있다.

"매일 2만본(本)을 만들어내려면 한눈 팔 틈이 없어요. 금호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짤막하게 대꾸하고 생산라인으로 몸을 돌리는 장지아량(25)군의 어깨에서 자부심이 넘쳐난다.

지난 22일, 텐진공항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금호타이어로 향하는 길은 말 그대로 황량함의 연속이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회색 단층건물들, 꽁꽁 얼어붙은 웅덩이, 열병식하듯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들…. 그 위에 잿빛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금호타이어 텐진공장은 텐진공항으로부터 버스로 20여분 거리, 텐진시가 구축해놓은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다. 경제기술개발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텐진공장의 부지는 9만3천평, 건평은 4만여평에 달한다. 지난 2004년 텐진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5년 기공식을 거쳐 지난해 7월 준공식을 가졌다.

텐진공장은 지난 96년 설립된 난징(南京)공장, 오는 7월 준공될 창춘(長春)공장과 더불어 중국 타이어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꼽힌다.

중국 텐진시 경제기술개발구내에 위치한 9만3천여평 규모의 금호타이어 텐진공장. 내년 쯤 연산 1천300만본의 타이어를 생산, 중국시장 1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 텐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텐진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성능(UHP)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갖춰 올해 1일 2만본, 연간 700만본을 생산해낼 계획이다.

올 생산량 가운데 중국 현지판매 85만본(12%) 외에 610만본(88%)을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텐진공장은 세계 자동차메이커의 경쟁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을 겨냥, 올해 내수 비중을 30~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국 현지판매는 지난해 상하이(上海)에 설립된 '금호타이어 중국 판매유한공사'가 맡고 있다. 현지 판매망은 금호타이어 대리점 250개소, 종합취급업소 1만1천개소에 달한다.

정상우(50) 텐진공장 총경리는 "내년 쯤 2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본으로 늘어난다"면서 "중국내 시장점유율도 현재 16%에서 20%를 웃돌아 경쟁업체인 H타이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텐진=이종태기자 jtlee@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강주용 지오토 대표

"차 고장 자동 점검기 20개국 수출"

회사 설립 2년만에
年 매출 90억 기대

'1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 시상식이 30일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강 대표,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동차 부품의 고장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30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한 '1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을 수상한 지오토(광주시 북구 월출동) 강주용(43) 대표는 "올해는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기기 개발업체인 지오토는 3년 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자동차 정비사와 자가운전자를 위한 전기·전자테스터인 '터미네이터'를 일본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터미네이터'는 특수램프를 통해 차량 각 기관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이어 미국의 자동차 진단기기 전문유통업체인 AES WAVE사와 영국·독일 등에도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출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강 대표는 "특히 지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영국의 Delphi Diesel사가 '터미네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20여개국에 독점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비중도 올해 예상 매출액 90억원 가운데 5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7명의 지오토가 지난해 5억원 매출에서 올해 90억원까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에서 비롯됐다. 2005년 회사설립 이후 불과 2년만에 특허등록 2건, 실용신안등록 2건, 의장등록 1건 등을 보유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강 대표는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MDS 네트웍스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지능형 진단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마크와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이미 획득, 수출장애물을 제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차기 대통령감은 성장 지향형"

광주·전남 CEO 36% 응답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자(CEO) 대다수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성장지향형 지도자'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가 10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새해 경제전망' 조사에서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느냐는 설문에 36%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어 '사회통합형 지도자'(35%), '안정중시형 지도자'(17%), '개혁주도형 지도자'(12%)가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극심한 침체국면'(58%), '경기회복세 침체국면'(34%)이라고 답해 92%가 경기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기준) 전망에 대해서는 3~4%대가 전체 응답자의 83%였으며, 지난해 4~5%대가 80.4%에 달한 것에 비해 훨씬 비관적이었다. 또 기업의 손익분기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평균 963원, 원엔 환율은 823원이라고 답했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정책의 불투명성(18.8%), 노사관계 불안정성(17.5%),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17.0%), 환율 불안정성(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3.5% 상승

호남지역 2.4% 하락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3.5% 상승한 반면 호남지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2.4% 하락했다.

국세청은 전국 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1월초 거래가를 반영해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권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159개) 골프장이 평균 3.5% 상승했다. 경기(73개) 6.4%, 강원(13개) 6.1%, 영남(27개) 0.6%, 충청(16개) -1.3%, 호남(14개) -2.4%, 제주(16개) -2.8%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남지역 회원권 기준시가(2006년 8월1일→2007년 2월1일) 변동추이는 ▲골드레이크CC(나주) 일반회원 1억1천700만원→1억1천700만원 ▲광주CC(곡성) 우대회원 4천950만원→4천900만원, 일반회원 3천300만원→3천200만원 ▲남광주CC(화순) 일반회원 4천150만원→3천900만원이었다.

또 ▲승주CC(순천) 일반회원 9천400만원→8천950만원 ▲아크로CC(영암) 일반회원 8천100만원→8천100만원 ▲클럽900CC(화순) 일반회원 6천550만원→6천250만원, VIP 1억8천만원→1억8천만원 ▲파인힐스CC(순천) 일반회원 1억6천200만원→1억6천200만원 ▲함평다이너스티CC(함평) VIP 1억2천150만원→1억2천150만원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 2곳중 1곳 "직원 뽑겠다"

잡코리아 876개사 대상 조사

중소기업 2곳 중 1곳 가량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 876개사를 상대로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49.0%인 429개 업체가 '상반기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업체는 33.2%(291개사)였고 '채용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17.8%(156개사)였다.

구체적인 채용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채용예정인 429개사 중 38.9%(167개사)가 '1분기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답했고 '수시채용' 35.0%(150개사), '2분기에 채용' 26.1%(112개사)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난해 훼손화폐 교환
광주·전남 9,208만원

불에 타거나 부패돼 새 돈으로 교환된 '소손권(燒損券)'이 5년만에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 곰팡이에 의해 부패돼 새 돈으로 교환된 소손권은 9천208만원으로, 2005년 1억229만원에 비해 1천21만원(10.0%) 줄어드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건당 평균 교환금액도 9만2천원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만원 수준을 밑돌았다.

발생원인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3천671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땅속이나 항아리 등에 보관하다 습기·곰팡이에 부패된 경우는 2천831만원(30.7%)에 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